

개인별 등록제		가족별 등록제	목적별 등록제	주민등록과 일원화
내용	- 개인 중심으로 등록부 정리	- 부부와 미혼자녀가 기본 단위	- 출생·혼인 등 사건	주민등록과 행정 통일화

서 혼인·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 변동사항이 개인별로 기록된다.

여성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돼 아버지나 남편·아들의 호적에 들어 갈 필요가 없어졌다.

등록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정부 부처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국가가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에 의견을 조화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가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성계의 조율을

이에 맞서 법무부는 “대법원은 입법 기능이 없으며 행정자치부·여성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 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문 기자
jmoon@joongang.co.kr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들

개인별 등록제	가족별 등록제	목적별 등록제	주민등록과 일원화
내용 - 개인 중심으로 등록부 정리 - 부모·자녀·배우자는 성명과 주민번호만 기재	- 부부와 미혼자녀가 기본 단위 - 2세대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기재	- 출생·혼인 등 사건 별로 따로 관리	주민등록과 호적 동일화
장점 혼인·이혼이 자녀의 신분등록부에 나타나지 않을 단점 친족단위 해체	신분변동 및 신분관계 쉽게 파악 결손가족·혼외자 차별	개인 생활 보호 가족관계 파악 곤란	양성불평등 해소, 행정 간소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시행 국가 스웨덴·네덜란드	일본·스위스	미국·캐나다	

미혼여성이 결혼 때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남편 이름 추가로 기재

◆미혼 여성이 결혼하면=미혼 여성 A는 호주인 아버지 아래 어머니·오빠·여동생과 함께 호적에 올라 있다. 현재 A가 결혼하게 되면 호적부에 ‘x’ 표시로 지워지면서 ‘언제 누구와 결혼해 호적에서 빠졌다’고 기록된다.

그러나 새 신분등록제도에서 A는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갖게 된다. 결혼 뒤에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배우자란에 남편의 이름이 기재된다. 남편의 배우자란에도 A의 이름이 올라간다. 친정 부모는 A가 미혼일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부 부모란에 이름과 주민번호·생년월일이 남는다.

현재 A가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A의 인적사항이 추가될 뿐이다.

이혼해 아들과 살 때 아들의 신분등록부에 부모 이혼사실 안나타나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면=이혼 사실은 여성의 신분등록원부에만 기록된다. 새 남편의 등록부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만 표시되기 때문에 여성의 이혼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A라는 여성이 B와 이혼한 뒤 C와 재혼하면, 그 사실이 A의 등록부에 기록되지만 C의 등록부에는 A와 결혼했다는 사실만 기록된다. A의 이혼 경력을 새 남편인 C를 비롯해 제3자가 확인하려면 청구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춰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허락받아야 한다.

◆입양하면=부모의 등록부와 입양된 자녀의 등록부에 입양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이의 성이 바뀌지 않는 일반 입양의 경우 아이의 등록부에는 생부

모·양부모가 함께 기재된다. 개정되는 민법 개정안에서 도입될 ‘친양자 제도’에 의해 입양된 아이의 경우 성이 바뀌게 돼 아이의 부모란에는 생부모의 이름은 빠지고 양부모만 표시된다.

◆이혼해 아들과 살 때=이혼녀 A가 전 남편 B와 이혼한 뒤 아들 C와 따로 살면 아들의 등록부 부모란에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A와 B가 기록된다. A와 B의 이혼 여부는 이들 개인의 신분등록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호적 제도에서는 B가 A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남아 C가 호적을 뗄 경우 부모의 이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

문병주 기자
byungjoo@joongang.co.kr

여성계 “현실성 살린 합리적 방안”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새 신분등록 제도에 대해 학계와 여성계는 대체로 ‘현실성을 살린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계가 주장해 온 1인1적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안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양현아(법여성학) 교수는 “대법원 안이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갖게 함으로써 현재 호적제도가 갖는 부계혈통의 가부장적 의식을 탈피하게 하는 양성평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대표

도 “새 방안은 신분등록원부와 목적별 공부(公簿)를 분리해 이혼이나 입양과 같은 사생활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족·혼인·입양증명서와 같은 공부 기준과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대법원 안에는 가족·일반·혼인 증명 등의 명확한 발급 기준이 없다”며 “엄격한 제한을 뒤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축적하되 외부 공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긴 신분등록 등본의 발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 대표는 “신분등록등본은 본인과 국가 기관에만 발급하는 것이 대법원 안인데, 국가 기관 간에도 정보를 주고받을 경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며 “엄격한 제한을 뒤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 기자
moonk21@joongang.co.kr

2005학년도 상명대학교 전기 편입생 모집

● 서울캠퍼스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명)		
		학부(과)	전공	일반편입	학사편입 (최대선발인원)	
인문·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과학부	사학	5	12	
			지리학	5		
			문화정보학	3		
		경제통상학부	경제학	8	13	
			국제통상학	9		
		경영학부	경영학	20	10	
		법학과		1	4	
		행정학과		8	8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1	4	
		영어교육과		4	4	
		불어교육과		5	4	
		일어교육과		5	4	
		교육학과		1	4	
	자연	수학교육과		3	4	
자연과학대학	자연	생명·화학 시스템학부	화학	14	14	
			생명과학	11		
			공업화학	12		
		생활환경학부	의류학	2	12	
			외식영양학	2		
			가족복지학	2		
			소비자주거학	2		
		소프트웨어대학	자연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	29
미디어학부	미디어			6	9	
에·체능대학	예체능	조형예술학부	한국화·서양화·조소	3	-	
			목질공예·섬유공예	2	-	
		음악학부	피아노	2	-	
			성악	남자	3	-
				여자	4	-
			체육학부	작곡	5	-
		관현악		5	-	
		체육학부	체육	8	-	
			무용	한국무용	3	-
				현대무용	1	-
발레	2		-			
서울캠퍼스 계				196	70	

● 천안캠퍼스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명)	
		학부(과)	전공	일반편입	학사편입 (최대선발인원)
여문대학	인문	한국어문학과		9	5
		일본어문학과		8	5
		중국어문학과		9	5
		영미어문학과		11	6
		프랑스어문학과		11	4
		독일어문학과		7	4
		러시아어문학과		10	4
디자인대학	예체능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8	5
			의상디자인	4	4
			섬유디자인	6	4
			실내디자인	2	4
			요업디자인	4	4
			산업디자인	3	4
			예술대학	예체능	영상학부
영화	18	6			
출판문화	1	7			
문화·애니메이션 학부	애니메이션				1
	만화콘텐츠	-			
공연학부	연극	8			6
	무대 미술	미술분야			1
		조명분야	2	-	
산업대학	자연	식품산업공학과	11	9	
		환경조경학과	5		
	인문	금융보험학부	보험	8	10
			증권금융	12	
			레저스포츠	11	
	예체능	사회체육학부	건강관리	9	12
			유아·시니어스포츠	5	
공과대학	자연	컴퓨터시스템공학과	2	16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9		
		정보통신공학과	8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7		
		생명정보공학과	4	3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	8	8
			환경공학	12	
		천안캠퍼스 계			

▶ 원서접수: 100% 인터넷접수 (www.smu.ac.kr / www.kimyoung.co.kr / www.applybank.com)
2005. 1. 17(월) 09:00 ~ 1. 19(수) 17:00까지

▶ 고사일정: ① 서울캠퍼스

- 일반편입 영어 및 수학고사: 2005. 1. 26(수)
- 일반편입 예체능계 실기고사 및 학사편입 각종고사: 2005. 1. 27(목)

② 천안캠퍼스

- 일반·학사편입 각종고사: 2005. 1. 26(수)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더 큰 세상을 꿈꾸어라

서울캠퍼스 110-743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 T 02 2287 5010 천안캠퍼스 330-720 충남 천안시 인서동 산 93-20 T 041 550 5013

www.smu.ac.kr

※상명대학교: 전라·경의·사랑을 바탕으로 문화·창조와 인류복지에 이바지 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신·체·정·행의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원칙: 창의·협력·인성·실용을 지향한다. ※교육과정: 학위·학점·학위를 취득하는 과정교육 / 학위와 실용을 지향하는 전공교육 /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화교육 / 평생과 봉사을 중시하는 사회교육